공연·관광·숙박까지… 창동, K-팝 흐르는 '문화거점' 된다

서울시, 2.7조 투입 창동일대 개발
2.8만명 규모 '서울아레나' 중심
상업, 숙박, 여가 등 인프라 조성
용적률 등 규제완화로 투자유치

창동 아레나 조감도. /서울시

서울 관광 3000만 시대.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가 365일 K-POP이 흐르는 글로벌 문화중심지이자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집적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문을 여는 2만 8000명 규모 K-POP 성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주변 문화·예술시설과 특화 상업시설 등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창동 일대를 2027년까지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로 'K-엔터타운' 조성을 지원한다.

◆ '서울아레나' 거리 곳곳 공연·이벤트

서울시는 서울아레나에서 연 100회 이상 3만 명이 찾는 공연을 개최하도록 추진하고, 창동역 광장과 고가 하부 등 곳곳에서는 거리공연과 버스킹이 상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DDP와 '동대문 K-POP 거리' 등 강북지역 문화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개발하고, 서울아레나 개관 시기에 맞춰 서울 대표 계절축제 '스프링페스티벌'과 연계한 행사도 개최한다.

아울러 시는 문화산업과 일자리를 이끄도록 유도한다. K-엔터타운 내 K-컬쳐 특화 상업시설을 마련해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를 자연스럽게 늘린다는 복안이다.

창동역 인근에 있는 저이용 부지와 노후 기성 상업지 등에는 용적률 최대 1300%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상업, 관광숙박, 기업업무공간을 도입한다.

문화·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대한 유치와 집중 육성도 펼친다. 서울아레나 내 조성되는 대중음악지원시설은 공공이 직접 운영, 중소기획사 등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의 음악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한다.

◆ 창동역~중랑천 문화예술 테마거리

공연 관람객이 숙박, 여가, 미식 등 여행의 모든 일정을 창동에서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한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NH복합상업시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지원시설 용지 개발 시 숙박시설 700실 확충해 동북권의 부족한 관광인프라 틈새를 메울 계획이다.

또 이동이 하나의 관광코스가 되도록 창동역에서 서울아레나, 중랑천을 잇는 '문화예술 테마거리'를 비롯한 다양한 투어 루트를 개발하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전면에는 K-POP 광장을 조성한다. 창동역 남측에 조성된 골목상권은 'K푸드 특화거리'로 변신, 공연-먹거리-휴식이 어우러진 관광코스를 완성한다.

한편 서울시는 'K-엔터타운, 창동'의 위상과 문화산업·지역경제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동 일대를 '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 2027년 지정이 목표다.

자금융자, 세제지원,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도 지정하여 도로 등 공공 공간의 점용과 옥외광고, 간판 규제는 완화해 지역 내 상업 및 소비활동을 늘린다.

'K-엔터타운, 창동' 조성에는 총 2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까지 민간 및 공공자본이 총 2조가 투입됐고, 올해부터 총 70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창동을 비롯한 상계 일대는 더 이상 '외곽'이 아닌 서울 동북권의 문화예술 거점이자, 외국인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여는 중심공간으로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탄탄한 경제코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학교회계직 공무원 전환 찬반논란

"형평성 어긋" vs "신규자리 빼앗는 것 아냐"

전현희 의원 '특별법안'에 논쟁 확산
반대측 "공직인사체계 혼란 우려"
찬성측 "기존인력 신분 정리일 뿐"

중·고등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시험 없이 공무원이 되는 특혜"라는 반발도 제기되지만,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해 온 기존 인력의 지위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현희 의원은 최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별도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별도 절차를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7년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행 당시 초등학교 육성회 직원은 공무원으로 전환된 반면, 중·고등학교 인력은 제외되면서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고도 신분이 갈린 구조가 장기간 유지돼 왔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 측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공직 인사 체계 혼란 우려 ▲수험생과 현직 공무원의 반발 여론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한다.

이에 대해 법안 찬성 측은 이번 사안을 신규 채용 문제가 아니라 기존 인력의 신분을 정리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공개경쟁채용으로 선발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정원과는 별도로 다뤄지는 만큼, 공채 규모 축소나 신규 수험생 기회 박탈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호봉제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미 공무원 정원 안에 포함된 인력의 법적 신분을 바꾸는 것으로, 이를 일률적인 잣대로만 보는 것이 공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컬처라운지 경기, 장' 이틀간 1000명 방문

경기도-경기관광공사
18일 문화·관광 복합문화공간 개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한데 모은 복합문화공간 '컬처라운지 경기, 장(場)'이 지난 18일 개관 이후 높은 관심을 끌며 성공적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컬처라운지 경기, 장'은 개관 첫 주말 이틀 동안 약 1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프로그램 사전예약이 오픈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성과는 여행·전시·공연·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과,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한국도자재단·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아트센터·DMZ국제다큐영화제 등 6개 공공기관이 협업한 통합 운영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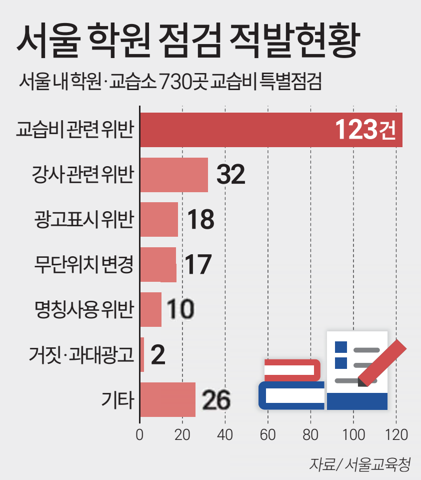
특히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맞춤형 여행 체험 프로그램 '로컬레이더(Local Radar)'가 핵심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었다. '로컬레이더'는 방문객이 현장에서 여행 성향을 진단받고 개인 취향에 맞는 경기도 여행지를 추천받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또 금관악기 연주 그룹 '코리안아츠'의 봄맞이 공연 'Music Road'은 관람객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경기관광 사진전'에서는 2024~2025년 공모전 수상작 약 30점을 선보이며 경기도 관광의 매력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도자 공예 체험, 문화 굿즈 판매 등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 학원 '꼼수 인상' 등 교습비 위반 적발



서울교육청, 학원·교습소 특별점검
730개원 점검, 228건 위반사항 적발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한 교습비 특별점검에서 전체 점검 대상의 약 23%에서 위반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학원·교습소 교습비 등 특별점검을 마무리한 결과, 730개원(소)을 점검해 167개원(소)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해 2월부터 4월까지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세부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228건 중 교습비 관련 위반이 1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교습비 관련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등 표시 위반 42건 ▲교습비 외 비용 징수 19건 ▲교습비 초과징수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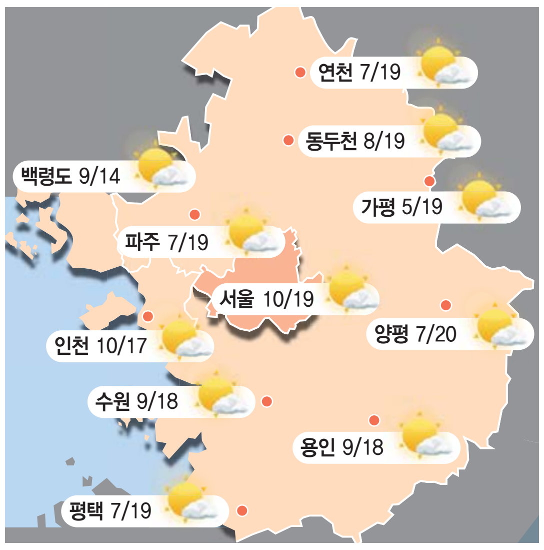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48 | 해짐 / 19:13

4월 **22일**(水)
음력 : 3월 6일

수도권 날씨 **10~1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美부통령 21일 파키스탄으로 출발…모즈타바 추가 협상 승인" /사진 뉴시스
▲美·쿠바, 차관급 회담…에너지 봉쇄 갈등 속 대화 재개
▲이란, 美에 나포된 화물선 투스카호 즉각 석방 촉구
▲이란, 전국 공항 재개방 시작…학자 등에 '제한적 인터넷' 허용
▲日 육상자위대 훈련 중 전차 포탄 폭발…대원 3명 사망
▲유엔 "트럼프 이란戰 2주 비용으로 8700만명 구호 가능"